



## 은수잡록 隱修雜錄

### 4 | 감사와 그 열매들

바로로 탄생 2000년을 기념하는 해에 그분이 내게 주신 교훈이나 지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테살로니카 1서 5장 18절에 들어 있다. 즉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공동번역), 또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새 성경번역)하는 이것이다. 처지를 가리지 말고, 일을 구별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말씀이다. 감사할 처지가 있고 감사하지 않아도 될 처지가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 있고 감사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드는 처지이든 들지 않은 처지이든 마찬가지로 감사하고 좋은 일이든 언짢은 일이든 똑같이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화위복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줄 수 없는 권고이다. 어떠한 일을 당하거나 겪더라도 하느님의 섭리를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도 그 신앙의 소유자였다.



김창렬 바로로 주교  
전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생로병사(生老病死)하는 인생 안에는 희노애락(喜怒哀樂)거리가 가득하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경우여라도 감사해야 하리라. 어떤 일에는 웃으면서, 또 어떤 일에는 울면서 감사해야 하리라. 어느 경우에는 기뻐하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슬퍼하면서 감사해야 하리라. 울고 웃는 차이라든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차이는 있을지라도 감사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가령 예수님의 수난에 대하여는 울면서 감사하고 그분의 부활에 대하여는 웃으면서 감사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박해에는 슬퍼하며 감사하고 성인이나 복자의 탄생에는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화일지라도 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무한히 자비로우신 그분에 대한 믿음과 희망에서 나오는 나의 말이다. 만일 믿는 이들이 모두 감사를 드리지만 하면 화 거리도 많이 줄어들 것임에 틀림없다.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는 자기 체험에서 말하기를 주님께 감사를 하면 감사할 일을 열 배나 늘려 주신다고 하였다. 성녀의 그 말을 뒷받침하기에 족한 체험이 나에게도 있다.

감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사제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 중에 하나라고 여긴다. 감사는 내 생활에서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열매들을 맺어주기 때문이다. 첫째로 사랑의 열매를 들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다. 그런데 그 사랑은 힘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 그것은 은총으로 되는 일인데 그 은총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하는 일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다. 양연(良緣)이든 악연(惡緣)이든 상관없다. 인연 맺어 주신 주님께 거듭거듭 감사하다보면 결국 그가 사랑스러워진다는 이치를 어렵듯이나마 터득하게 되더라.

둘째로 감사는 평화를 가져다준다. 내가 말하는 이 평화는 세계평화나 인류평화나 하는 거창한 것이 아니요 한 공동체의 평화도 우선은 아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평화이다. 그런데 감사 기도가 그 평화의 은혜를 내게 가져다주는 매체임을 깨닫게 되었다. 1970년 바오로 6세 교황께서는 1월 1일을 <평화의 날>로 제정하셨다.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분의 교황님은 해마다 전 세계와 교회를 향해 좋은 가르침과 함께 기도를 당부해 오셨다. 그뿐만 아니라 지구촌 어디에 서라도 분쟁이나 폭력사태가 발생하기만 하면 그때마다 폭력 중지와 화해와 평화를 호소하시면서 기도를 바치셨다. 심지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세계의 종교지도자들을 두 번씩이나 아씨시에 초청하여 함께 평화를 논의하면서 기도를 바치시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평화에 대하여 더 이상 가르치거나 호소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넉넉히 가르치셨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그 모든 순수하고 고귀한 노력도 아랑곳하지 않고 평화는 찾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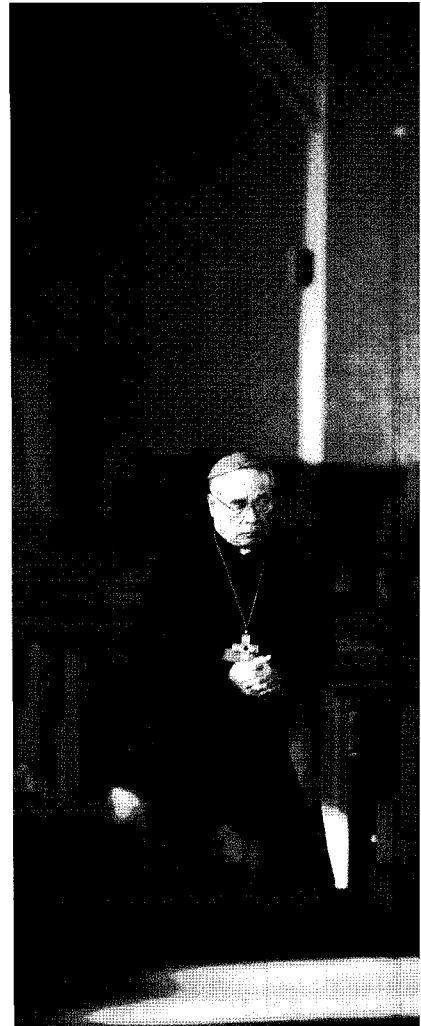
이에 나의 견해는 아무리 큰소리로 외쳐도, 아무리 간절히 희구(希求)하여도, 아무리 애절하게 호소하여도 세상 종말까지 세계평화나 인류평화는 오지 않으리라는 바로 이것이다. 내 견해의 바탕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 세상 종말의 표징을 묻는 제자들에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진통의 시작일 따름이다”(마태 24,7-8). 나는 이제 속된 표현으로 이른바 주제파악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만일 개인이나 대소 공동체들이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이 생활화되기만 하면 반드시 평화의 주님께서 그것을 베풀어 주시리라는 것이다.



감사의 또 한 가지 열매는 재미(기쁨)이다. 인생에는 그것이 있어야 한다. 그것 없는 인생은 불행하다. 공부에 재미를 붙이지 않는 학생은 학교 가기를 싫어한다. 직장인이 자기 직업에 재미를 붙이지 못하면 우울해진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사람은 성당을 멀리하게 된다. 수도자나 성직자가 자기 생활에 있어서 재미를 모른다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재미라는 것은 기쁨의 동의어이다. 재미는 인생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여 이르는 말이다. 육신과 영혼, 자연과 초자연의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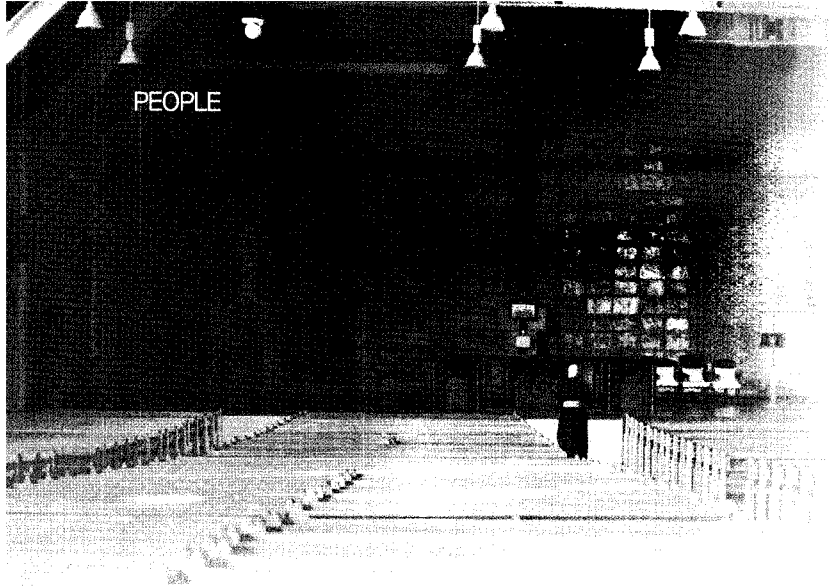
감사는 인생에 기쁨과 재미를 준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나 감사를 권하고 싶다. 그대여,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가? 양연이든 악연이든 그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님께 감사드리시라. 그대여, 평화를 누리고 싶은가? 무작정 감사기도를 드리시라. 그대여, 직장생활이나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덮어놓고 감사하시라. 그대여, 행복하고 싶은가? 열렬히 감사하시라.

요즘에 와서 지나간 생을 뒤돌아보니 오랫동안 감사하지 않고 겪은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은 있지만 이제라도 내게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그 슬한 사건 사고들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필요를 절감하였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걸쳐 쌓여온 것들을 하나하나 들추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생각다 못해 그것들을 한데 모아 합동 감사기도를 드리기로 하였다. 그렇게 하노라니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



## 5 | 끝으로 해야 할 말 : 하느님의 자비

이 글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이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닌 구체적인 성격의 것이다. 토마스 머튼은 하느님의 눈이 보시는 대상은 인류와 같은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개개인이라고 말하였는데 나는 그의 말에 수긍이 간다. 하느님은 나 개인을 구체적으로 사랑하신다. 나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은 완전무결하고 끝을 보고야마는 철저한 것이다. 당신이 사랑으로써 만들고 구원해주신 내가 영광스럽게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하느님은 시종일관 나를 뒤쫓으신다.



영국의 시인 프랜시스 톰슨은 그의 시 '하늘의 사냥개'에서 그와 같은 하느님에 대한 자신의 체험을 얘기해 준다. 그는 하느님(하늘의 사냥개)의 추적을 피하여 무의식, 성욕, 과학 연구와 탐

구, 자연, 관능적 쾌락, 인도주의 등을 찾아 도망간다. 그러나 그가 어느 곳에 피신해 들어가든지 추적은 끈질기게 그를 따라 붙는다. "지칠 줄 모르는 추적, 침착한 발걸음, 신중한 속도, 장중한 절박과 함께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를 그는 느꼈고 또한 그와 동시에 더 절박한 목소리를 가끔 들었으니 "나를 배반하는 너를 만물은 배반하리."라든가 "보라! 나를 흐뭇하게 해주지 않는 너를 흐뭇하게 해줄 자 없다."든가 또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너를 받아들일 자 하나도 없으리."라는 것이 그것이었다. 번번이 도피에 실패한 그는 마침내 하느님 앞에 굴복하고 만다.

시인 톰슨이 체험한 하느님은 바로 나의 하느님이시다. 그분은 나 없이 존재하시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마치 내가 당신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거나 한 것처럼, 자존자족(自存自足)하시는 그분이 마치 나 없이는 행복하실 수 없기라도 한 것처럼 나 없이 존재하시기를 원치 않으신다. 따라서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중도에서 포기하는 그런 어중간한 사랑이 아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을 보고야마는 악착스럽고 끈질긴 사랑이다. 내가 자유의지로써 궁극적이고 결정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는 한 나를 꼭 잡아 당신의 사랑 속에서 죽어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랑이다. 내가 여기서 뜻하는 바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느님은 인류를 집단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개 개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지난날 내가 사목할 당시에 하느님의 사랑을 느낀 나머지 중얼거린 독언(獨言)을 여기에 옮겨 놓는다.

"주님은 자연을 만들어 주셨다.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우주와 그 안에 있는 일월성신을 만들어 주셨다. 나를 위해서이다. 나는 하느님 사랑의 증거이며 표인 대자연 속에 살면서 갖가지 증거와 표들을 바라보고 누리며 살고 있다. 태양 없이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 공기 없이 어떻게 살겠는가? 물 없이 어떻게 살겠는가? 흙 없이 어떻게 살겠는가? 그것들 없이 내가 도저히 생존할 수 없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 소중한 선물인 자연 말고도 또 다른 선물을 내게 주셨다. 그 선물이란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다. 주님께서 내게 붙여 주신 당신의 아들·딸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주님은 나를 세상에 존재하고 생존하게 하시기 위해 내 부모와 형제·자매와 친지들을 주셨고 많은 스승들과 동료들과 선·후배들을 주셨으며 동족과 인류를 주셨다. 그들을 내게 주셨기에 나는 이렇게 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결코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집에 살 수도 없을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이 짓지 않은 밥을 먹고 입고 내가 만들지 않은 옷을 입고 있으며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있는 터이다. 언젠가 주님께서서는 내게 이런 것까지 깨닫게 해 주셨다. 즉 그분은 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위해 허다한 발명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전기의 혜택을 누리고 있고 비행기로 여행하게도 된 것이다. 그들은 나를 머리에 두고 발명품들을 만들지 않았지만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그것들을 만들 때에 나를 기억하셨다. 아니 나를 위해 그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발명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주님의 그 총애를 마치 예사로 온 것인 양, 당연한 것인 양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만일 주님께 거저 받고 있는 그 은혜를 옳게 인식하고 있다면 나는 언제나 큰 감격과 기쁨에 넘쳐 살고 있으련만! 그리고 주님의 선물인 자연을 잘 대해주고 형제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들을 사랑하게도 되련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초자연적 은총에 대해서는 더 말해 무엇 하라? 나를 당신 아들로 만들어 영원한 당신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내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나는 분명히 정신을 잃고 말 것이다. 고액의 복권에 당첨되어 너무 놀란 나머지 숨이 끊긴 사람이 있다지만 내가 아직 멀쩡히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이 큰 선물의 놀라움과 고마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사목생활을 하는 내내 주님께서 나를 돕도록 보내주신 당신의 아들·딸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은 일은 없다. 사제들, 수도자들, 평신도들 없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던 말인가? 문자 그대로 불가능하다. 꽃 한 송이 심지도 못하고 나무 한 그루를 옮겨심기조차 못하는 주제에 대자연의 덕을 누리며 살듯이, 또는 새둥지 하나 만들어 주지 못하면서 그것들의 노래를 즐기며 살듯이 나는 형제·자매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덕을 무상으로 받으며 사목생활을 하고 있다. 나를 돕는 형제·자매들의 은혜를 보답한다는 것은 도무지 나에게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내 있는 시간을 다 써가며 사례하러 나선다 하자. 과연 몇 사람에게나 할 수 있겠는가? 내 모든 소유를 가지고 보답한다 하자. 과연 얼마씩을 몇 사람에게나 할 수 있겠는가? 그보다도 내 것이란 그 소유가 과연 내 것 이기나한가? 이러한 처지에서 나는 자연히 하나의 신비를 대하게 된다. 그것은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요, 나를 위한 그분 섭리의 신비이다.

현세는 내세의 비유요 그림자라 한다. 현세에서의 하나님 사랑도 우리에게는 그림자 같은 표현일 뿐이다. 따라서 현세에서는 누구도 그분의 사랑을 실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 그분의 사랑을 만끽하는 것은 내세로 미루어진 일이다. 간혹 자연이나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사랑에 압도될 때 나는 내세에 유보되어 있는 그분 사랑의 완전한 체험을 갈망하게 된다. 시공에 사로잡힌 육체를 벗어나 주님을 바로 보면서 그분의 사랑을 유감없이 누리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럴 때면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이, 내 영혼, 하나님을 그리나이다. 내 영혼,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건만 그 하나님 얼굴을 언제나 가서 뵈오리까”(시편 42, 1-2) 하고 부르짖은 시편 작가의 애달픈 심정을 공감하게 된다. 그러나 그 애타는 갈증을 풀기 위해 통과해야 할 관문인 죽음이 아직도 싫으니 이 어인 일인가!”

제 삼천년 기에 들어서는 2000년에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를 성인품에 올리시고 성녀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자비를 입기 위해 <하나님의 자비주일>을 제정하셨다. 정녕 이것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분의 속성들 가운데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파우스티나 성녀는 말하였다. 그렇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분의 자비를 연상하게 된다.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존재요 죄인이지만 그분의 자비를 믿기에 기쁘게 살고 있는 것이다. 아! 고마우신 하나님의 자비여! <끝>